

주요 내용

1.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3 (목회자 조사)]

교인 500명 이상 대형교회 담임목사 2명 중 1명 '번아웃 상태'!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안락사에 대한 국민인식

2) 2022 청소년 통계_건강편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인 500명 이상 대형교회 담임목사 2명 중 1명 ‘번아웃 상태’!

‘번아웃’이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인(장년) 500명 이상 대형교회 목회자(담임목사) 2명 중 1명이 현재 이런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이 상황에서 ‘다음세대 교육’과 ‘전도’가 걱정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목회자가 가장 많이 꼽은 현재 교회의 어려운 점’이다. 그 외에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약화’, ‘출석교인 수 감소’, ‘재정의 어려움’ 등도 차례로 응답되었는데, 문제들이 연결성을 갖고, 서로 간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넘버즈 <148호>는 목회자 대상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 현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교회의 목회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3 (목회자 대상)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다. 금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목회자 대상 2차례 추적조사에 이은 3차 조사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서 한국교회 변화를 파악하고, 목회 현장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방법	총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모바일로 URL 발송)
• 표본 규모	총 981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모집단의 교회 규모 및 지역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0\%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모집단의 교회 규모(출석 교인 수) 및 지역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함
• 조사 기간	2022년 4월 27일 ~ 4월 30일 (4일간)
• 조사 주관	예장통합총회 / 기아대책 /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자료 해석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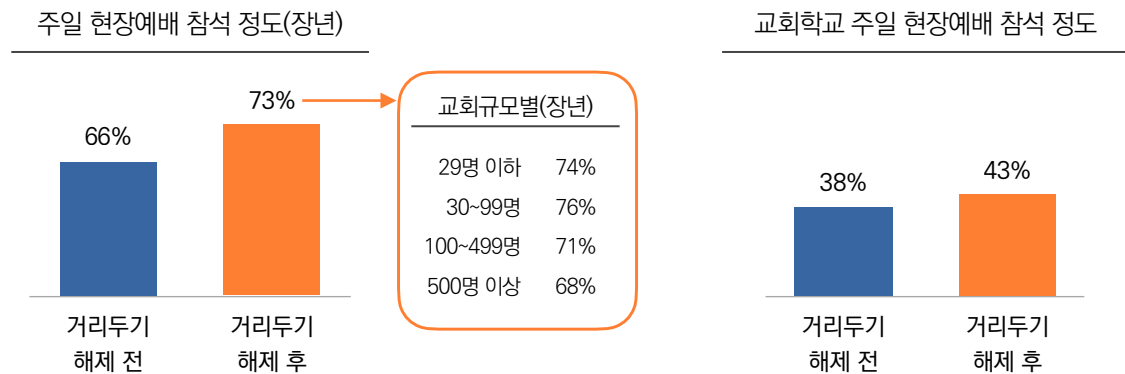
- 1) 본 조사는 예장통합교단 담임목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한국교회 전체 교단의 목회자를 조사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
- 2) 그러나 국내 메이저 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교단의 모집단 자료를 근거로 지역별/교회 규모별 비례할당하여 표본 추출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국교회 목회자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01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코로나 이전 대비 장년 73%, 교회학교 43%!

- ▶ 코로나19 이전(100% 기준) 대비 장년의 주일 현장 예배 참여 수준을 거리두기 해제 전후로 살펴본 결과, 해제 전 66%, 해제 후 73%로 조사됐다. 여기에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 시킬 경우 코로나 이전의 80% 수준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회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전 현장 예배 참여 수준은 코로나 이전 대비 38%였는데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장년 현장 예배 참석률(7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회학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개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학교가 한 국교회의 최대의 피해자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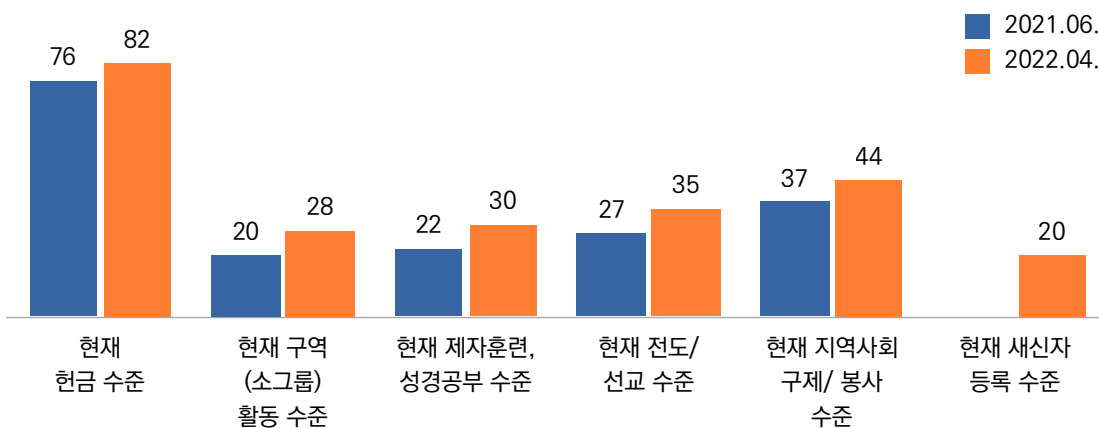
[그림]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배 참석 정도 (코로나19 이전 100% 기준, 평균)



◎ 교회의 중요 사역, 헌금(82%) 외에는 대부분 코로나 이전 대비 20~40%대 수준!

- ▶ 코로나 이전 사역 상태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각 사역별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다.
- ▶ '헌금 수준'이 82%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구제/봉사 수준' 44%, '전도/선교 수준' 35%, '제자훈련, 성경공부 수준' 30%, '소그룹 활동 수준' 28%로 나타나 작년 6월 조사에 비해 상승하긴 했으나, 대부분 코로나 이전 대비 20~40% 수준에 머물렀다.
- ▶ 새신자 등록은 코로나 이전의 20%로, 코로나 이후 새신자 유입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사역 정도 (코로나19 이전 100% 기준,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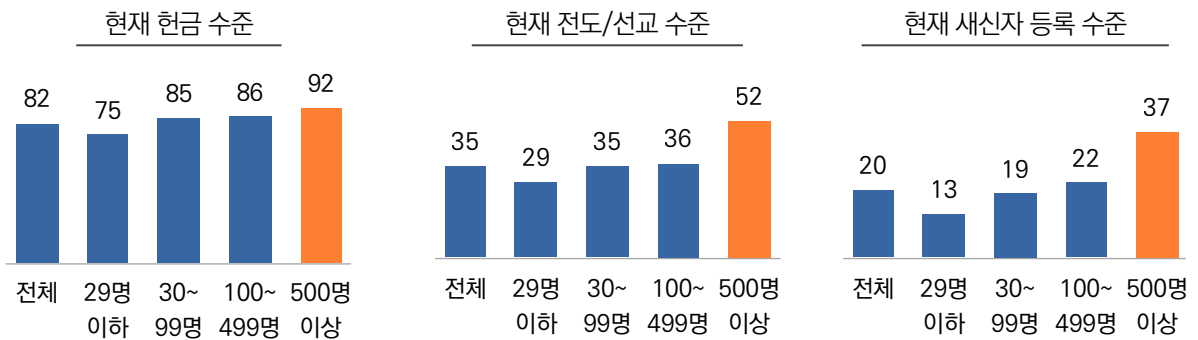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30)

**새신자 등록 수준은 2021년도에는 조사하지 않았음.

◎ 교회의 주요 사역들, 대형 교회일수록 회복력 빨라!

- ▶ 코로나 이전 대비 각 사역별 현재 상태를 교회 규모별로도 비교해 보았다.
- ▶ 먼저 '헌금 수준'의 경우 '500명 이상의 교회'는 92%, '100~499명' 86%, '30~99명' 85%, '29명 이하'는 75%로 나타나 교회 규모가 클수록 헌금 수준 회복력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 ▶ 또한 '전도/선교 수준', '새신자 등록 수준' 등에서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사역 정도 (코로나19 이전 100% 기준, 평균,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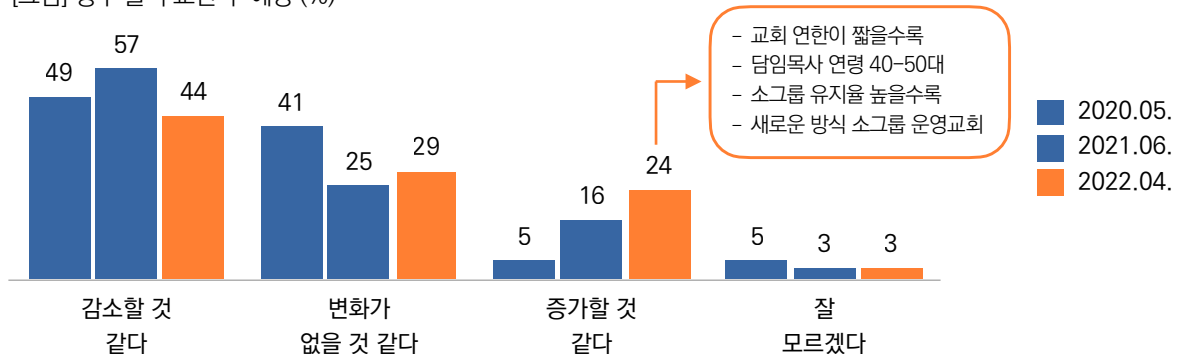


02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앞으로 출석 교인 수 '증가할 것 같다'. 16%(2021년) → 24%(2022년)로 높아져!

- ▶ 목회자들에게 거리두기 해제 후 출석 교인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는지를 물었다.
- ▶ 작년 결과와 같이 '감소할 것 같다'는 응답률(44%)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과 비교 시 줄었고, '증가할 것 같다'는 응답이 24%로 2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5% → 16% → 24%)를 보였다.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자신감있는 목회자가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점이 고무적이다.
- ▶ '교인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를 상세 분석해 보면, 교회 연한이 짧을수록, 담임목사 연령이 낮을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소그룹 유지율이 높을수록, 교회 내 소그룹이 전통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코로나 이후 교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향후 출석 교인 수 예상 (%)



*2020.05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전국 통합 소속 담임목사 1135명, 모바일조사, 2020.05.28.~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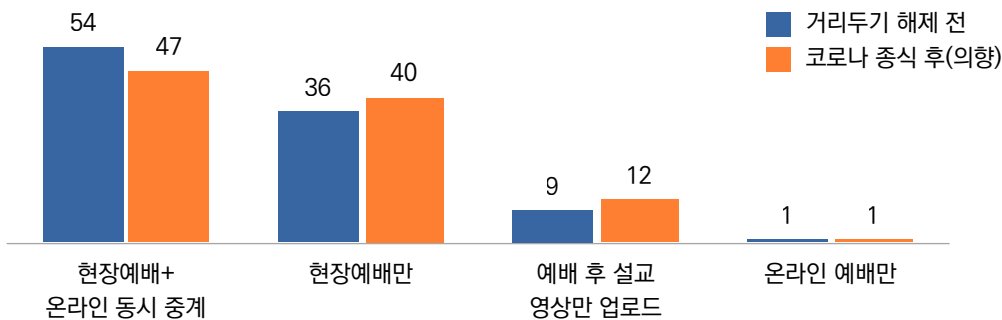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30)

03

주일 예배 실시간 온라인 중계 비율, 거리두기 해제 전 54% → 코로나 종식 후 의향 47%로 7%포인트 줄어!

- ▶ 거리두기 해제 전 주일 예배 형태를 묻은 결과, ‘현장예배+온라인 중계’가 54%로 가장 많았고, ‘현장예배만’ 드리는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 ▶ 이번에는 향후 코로나 종식 후 주일예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현장예배+온라인중계’ 비율이 47%로 나타나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 7%포인트 줄었다.
- ▶ 즉 현재 온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중 코로나 종식 후 13%의 교회는 온라인을 중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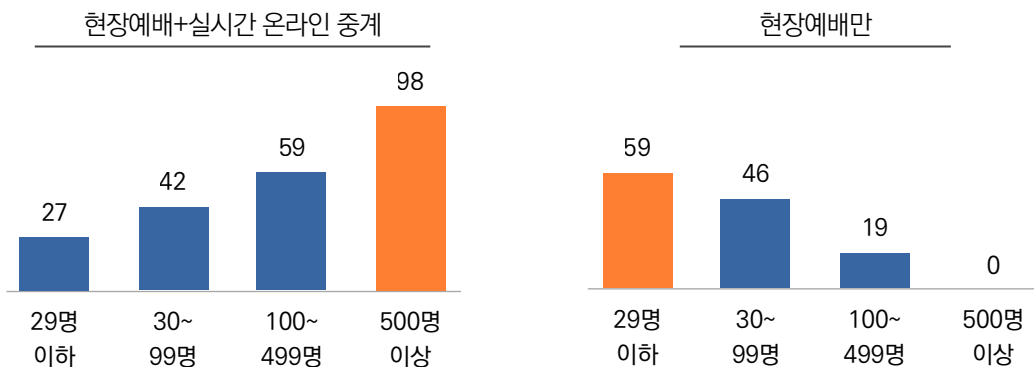
[그림] 거리두기 해제 전 주일 예배 형태 vs 코로나 종식 후 주일예배 운영 의향 (%)



◎ 소형 교회일수록 코로나 종식 후에도 ‘현장예배’ 의향 높아

- ▶ 향후 주일 예배 운영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를 조사하여,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았다.
- ▶ 교인 수(장년기준) ‘5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의 경우 98%가 ‘현장예배+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29명 이하’ 소형 교회의 경우 현장예배와 온라인을 동시중계 하겠다는 응답률이 27%에 그쳤다.
- ▶ 반면,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는 의향은 29명 이하 소형 교회의 경우 59%까지 올라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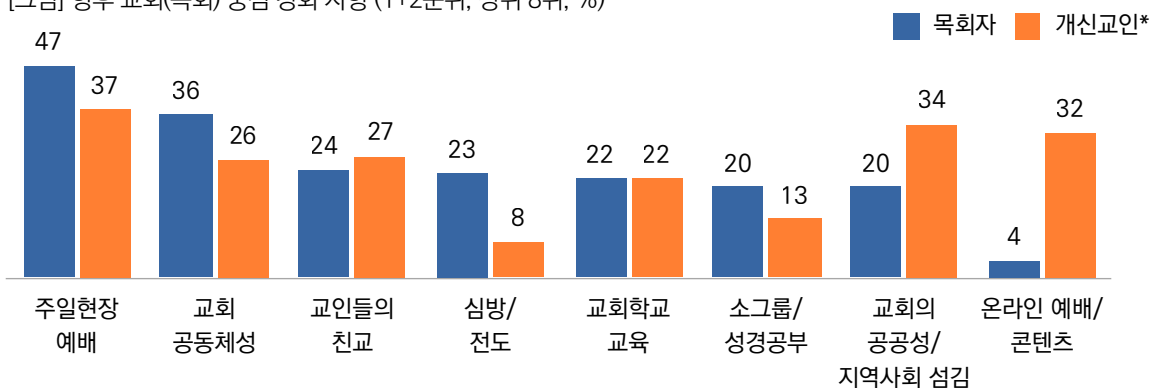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 종식 후 주일 예배 운영 계획 (교회규모별, %)



향후 교회(목회) 중점 분야, 목회자/성도 모두 '주일 현장 예배'를 1위로 꼽아 성도들은 지역사회 섬김과 온라인 강화 목소리가 목회자보다 훨씬 높음

- ▶ 향후 교회(목회)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목회자와 성도 두 그룹 모두 '주일 현장 예배'를 가장 많이 꼽았다.
- ▶ 다음 응답 순위부터는 목회자와 개신교인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는데, 목회자는 2위가 '교회 공동체성', 3위 '교인들의 친교'인데 반해 개신교인은 '교회의 공공성/지역사회 섬김', '온라인 예배/콘텐츠' 순으로 나타났다.
- ▶ 목회자와 개신교인 모두 '주일 현장 예배' 즉, 말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목회자들의 경우 '교회의 본질'(공동체성, 친교, 전도 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성도들은 '교회의 공적 역할'과 온라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 향후 교회(목회) 중점 강화 사항 (1+2순위,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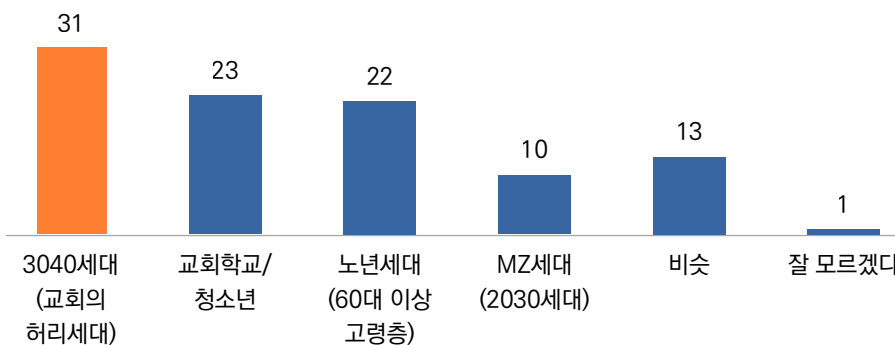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4차)', 2022.05.25.(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2.04.15.~04.25)

◎ 향후 목회 중점 세대, '3040세대'!

- ▶ 목회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어느 세대에 목회적 중점을 두고 싶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회의 허리세대인 '3040세대'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회학교/청소년' 23%, 'MZ세대' 10%가 그 뒤를 이었다.
- ▶ 코로나 이후 젊은세대의 이탈과 관련 각종 세미나에서 MZ세대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강조들이 있어 왔는데 실제 현장 목회자들은 MZ세대를 목회 우선순위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 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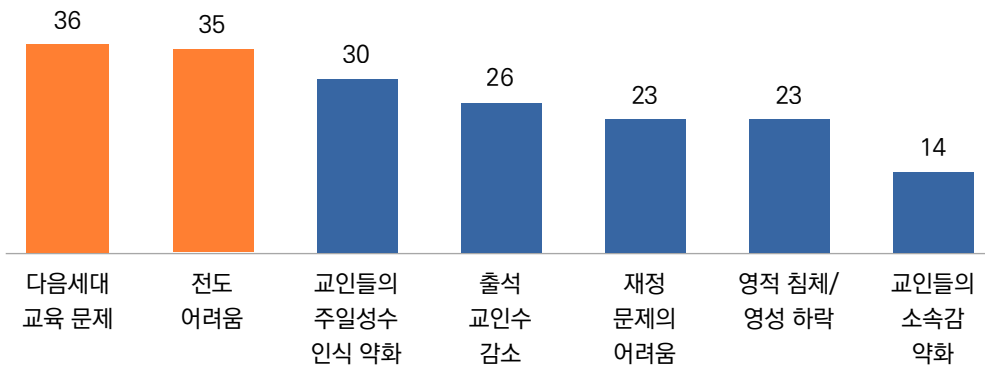


05

목회자가 꼽은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다음세대 교육'과 '전도'!

- ▶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세대 교육 문제'(36%)와 '전도 어려움'(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앞에서 교회학교와 새신자의 저조한 유입률을 살펴보았는데, 목회자들 역시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또한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약화'에 따라 '출석교인 수가 감소'하고, 또 그에 따라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등 도미노 현상처럼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현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 (1+2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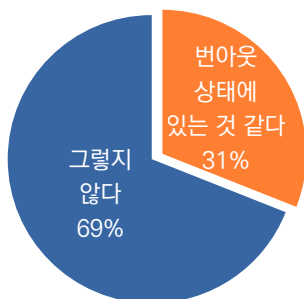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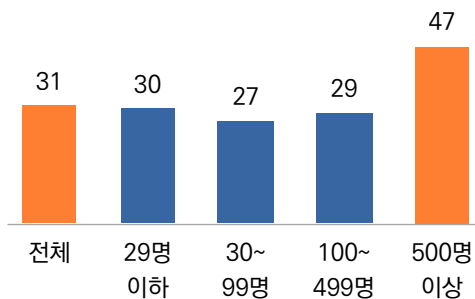
교인 500명 이상 대형교회, 목회자(담임목사) 2명 중 1명 '번아웃 상태'!

- ▶ '번아웃'이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 문장을 제시한 후 현재 목회자들이 얼마나 번아웃을 겪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 ▶ 그 결과, 목회자(담임목사) 10명 중 3명(31%)은 현재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교회규모 별로 살펴보면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 목회자의 경우 무려 절반 가까이(47%)가 '번아웃'을 겪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목회자 번아웃 여부



[그림] 목회자,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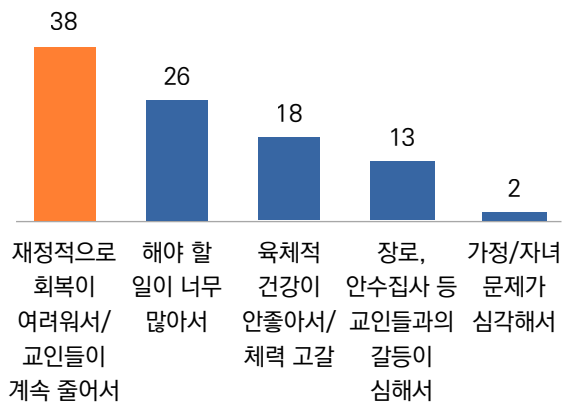


◎ 교회 규모별로 목회자 ‘번아웃’ 이유 차이 보여!

- 99명 이하 교회 ‘재정/교인 감소’, 500명 이상 교회 ‘업무량 과다’

- ▶ 번아웃 이유로는 ‘재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워/교인들이 계속 줄어서’가 38%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 건강이 안좋아서’, ‘교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서’ 순으로 응답됐다.
- ▶ 번아웃 이유는 교회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99명 이하’의 교회 목회자는 50% 이상이 ‘재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워/교인들이 계속 줄어서’를, 그 외 ‘100~499명’과 ‘500명 이상’ 교회의 경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를 가장 많이 꼽아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목회자 번아웃 이유
(현재 번아웃 상태인 목회자, 상위 5위, %)



[표] 목회자 번아웃 이유
(교회규모별, 현재 번아웃 상태인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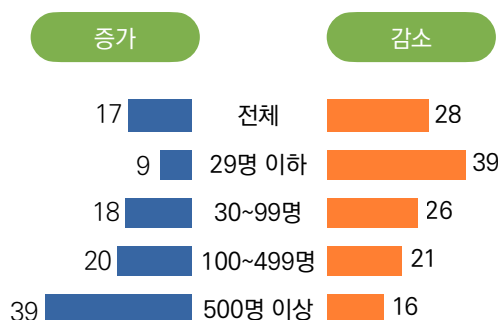
교회규모(장년)	1위	2위
29명 이하	재정/교인감소 (56%)	체력 고갈 (18%)
30~99명	재정/교인감소 (50%)	할일 너무 많음 (20%)
100~499명	할일 너무 많음 (32%)	교인과의 갈등 (28%)
500명 이상	할일 너무 많음 (48%)	체력 고갈 (28%)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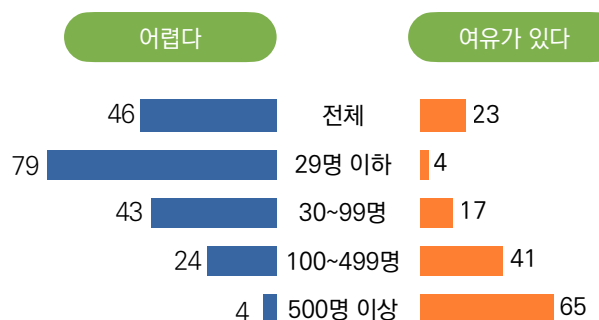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양극화 급격하게 진행 중!

- ▶ 교회의 재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목회자들에게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99명 이하 소형교회는 감소 비율이 증가 비율보다 높았고, 반대로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증가비율이 감소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 이런 영향은 올해 재정형편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해 99명 이하 교회는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고, 100명 이상 교회는 여유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 ▶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형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대형교회는 여유가 있는 양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작년 대비 올해 교회 예산 변화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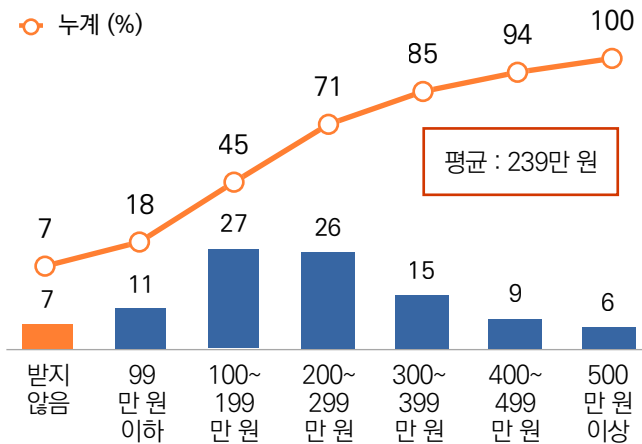
[그림] 현재 교회 재정 상태 (교회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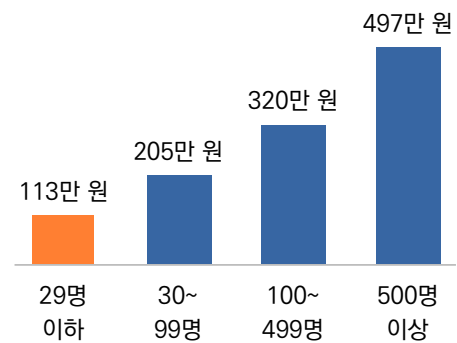
◎ 목회자(담임목사)의 45%, 근로자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어!

- ▶ 목회자(담임목사) 월 사례비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월 평균 239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아예 받지 않는 비율이 7%였고, 500만 원 이상되는 목회자는 6%였다. 전체적으로 45%의 목회자가 월 199만 원(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월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근로자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월 191만 원)
- ▶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면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월 평균 113만원,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497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림] 월 사례비 (전체 목회자 기준, %)



[그림] 월 사례비 (교회규모별, 받지않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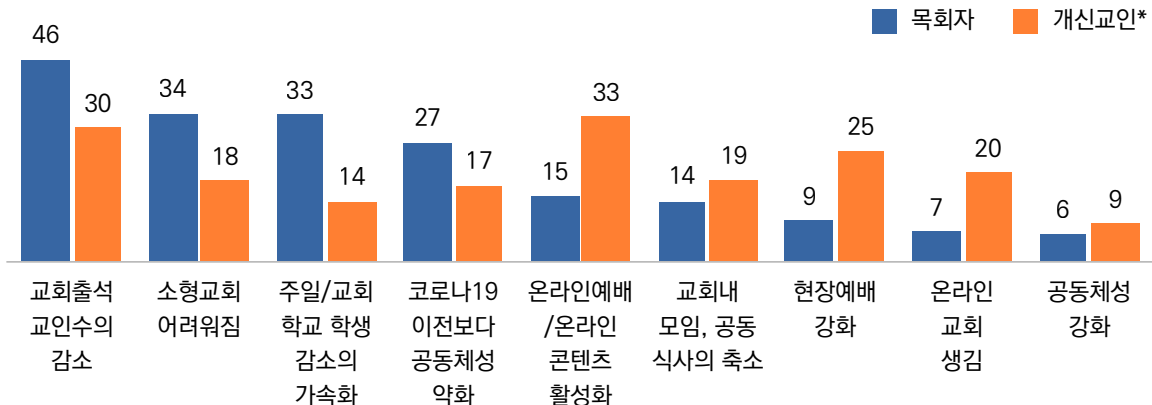


08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 변화, 목회자는 ‘출석 교인 수 감소’, 성도는 ‘온라인 활성화’!

-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변화로 목회자는 ‘출석 교인 수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소형교회 어려워짐’, ‘교회학교 학생 감소 가속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 한편,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콘텐츠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온라인 교회 생김’ 비율도 높아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큼을 알 수 있다.
- ▶ 이번 조사에서 ‘공동체성 약화’와 ‘공동체성 강화’라는 반대 항목을 함께 제시했는데 목회자와 개신교인 모두 공동체성 강화보다는 약화 예상이 더 높았던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예상 (1+2순위, 상위 9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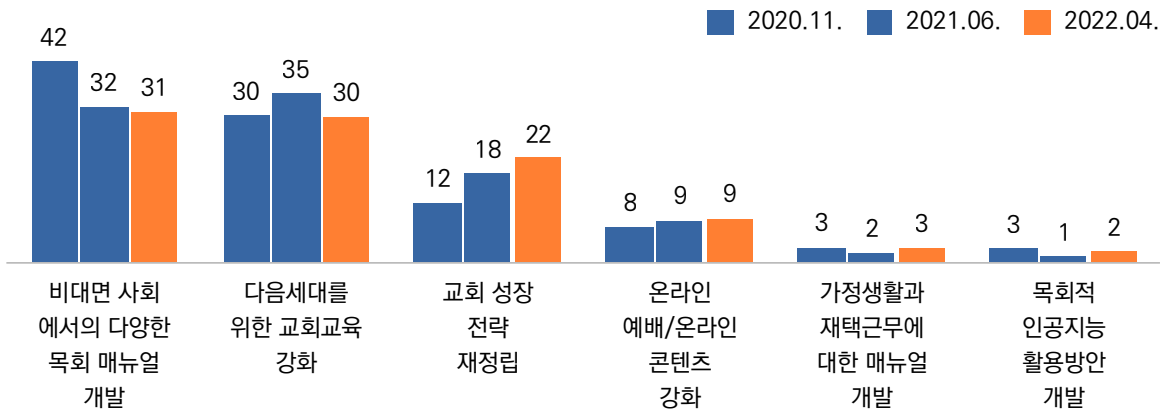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4차)', 2022.05.25.(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2.04.15.~04.25)

◎ 미래 목회 준비, ‘교회성장 전략 재정립’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가

- ▶ 앞으로의 미래목회 준비 방향으로 ‘비대면 사회의 다양한 목회 매뉴얼 개발’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강화’가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교회 성장 전략 재정립’에 대한 응답률이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 ▶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어려움을 극복·개선하기 위한 총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교회 성장 세미나 및 컨설팅 제공 등) 모색이 요구된다.

[그림] 미래 목회 준비 사항 (%)



*2020.11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전국 담임목사 480명)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30)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다. 남은 규제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교회의 예배, 모임 등도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포스트코로나19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회 양극화이다. 교회 양극화란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몰리고 소형교회는 더 약해지는 현상으로서 교회 성장 정체기에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사실 교회 양극화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2019년 예장통합 교세통계에 따르면 교인 수 10,000명 이상 교회의 비중이 0.2% 밖에 되지 않았고, 교인 수 30명 이하 교회의 비중은 34%나 되었다. 그런데 교회 수로는 전체 교회의 0.2% 밖에 되지 않는 10,000명 이상 교회의 교인수가 예장통합 전체 교인수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회수의 34%나 되는 30명 이하 교회 교인수는 전체 교인수의 2%에 불과할 정도로 교회 양극화는 심화되어 있다.(넘버즈 67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세통계 분석' 참조) 이렇게 교회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은 교회의 조직 시스템, 교회 시설 및 규모, 설교 및 교육 수준, 재정 상황, 교인 익명성, 교통 편리성으로 인해 원거리 대형 교회 접근성 강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요인으로 교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 인력 등의 능력이 꼽힌다. 하지만 결정적 요인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측한다. 코로나19로 초래된 비대면 사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 강화될 것이다. '비대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4차산업사회가 낳은 여러 변화이며, 결국 오게 될 미래를 앞당긴 변화이다. 4차산업사회에서 비대면의 확산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비용 절감, 편리성 추구, 사람들의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즉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욕구가 기술의 변화에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비대면 사회'인 것이다.

만약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실

시간 예배를 중단한다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이와 관해서는 지난 5월 31일 발행된 「넘버즈」 146호와 6월 7일에 발행된 「넘버즈」 147호에 잘 분석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강화해주길 원하고 있다.(147호 10쪽 참조) 즉 온라인에 대한 욕구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만약 출석 교회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57%만이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응답했고, 43%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146호 7쪽 참조) 현장 예배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중단이 의도하지 않게 교인을 떠나보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는 촬영, 편집, 송출을 위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소형교회는 대형교회를 이길 수 없다. 또 대형교회는 온라인 교구, 온라인 교회로 사역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형교회 성도가 대형교회로 이적하거나 교적은 소형교회에 두면서 대형교회 온라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소속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될 수 있다.

교회의 양극화 환경에서 소형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대형 교회 현상과 사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형 교회가 주지 못하는 효익을 소형교회가 제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성도들이 대형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대형 교회에서 소외된 성도들이 소형교회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교회 양극화 시대에도 그런 소형 교회는 넉넉히 살아남을 것이다.

1.[안락사에 대한 국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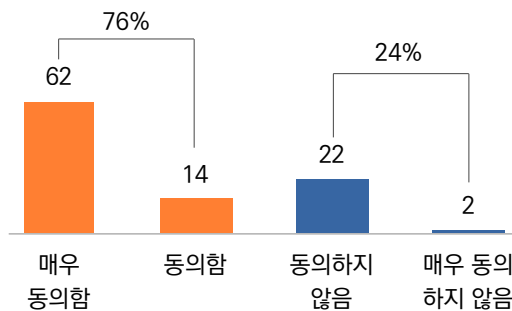
2.[2022 청소년 통계_건강편]



우리 국민 76%,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

-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의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 관련 최근 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대한 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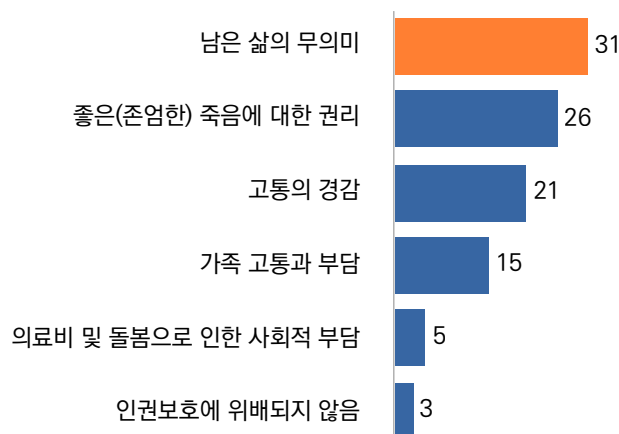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2022.05.24.(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2021.03~04) (서울대학교병원 공식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chsnuh/222745532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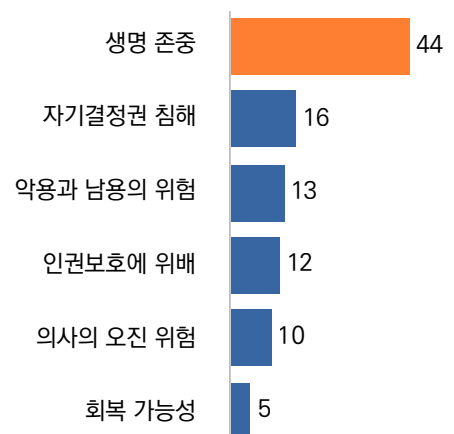
◎ 안락사 찬성 이유 : '남은 삶의 무의미', 안락사 반대 이유 : '생명 존중'

- ▶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 '고통의 경감' 21% 순이었다.
- ▶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 44%, '자기결정권 침해' 16%, '악용과 남용의 위험'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찬성 이유 (%)



[그림]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반대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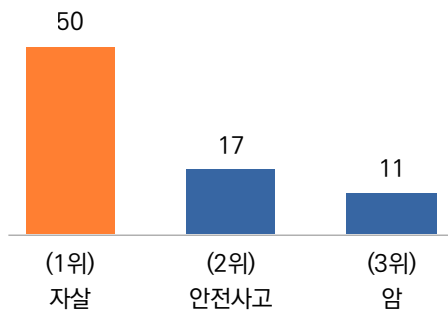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2022.05.24.(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2021.03~04) (서울대학교병원 공식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chsnuh/222745532094>)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10년째 1위!

- ▶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2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암' 순이었다.

[그림]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2020년 기준,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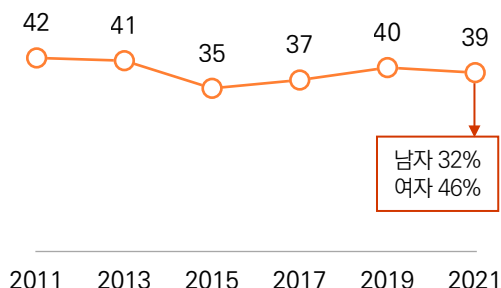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통계', 2022.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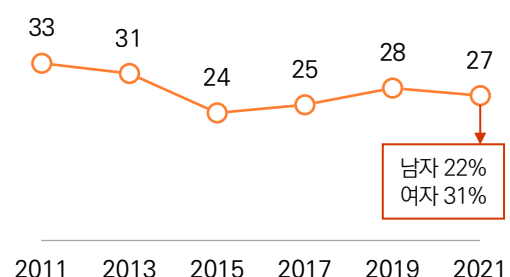
◎ 청소년 10명 중 3명꼴,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 경험'!

- ▶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험 수준은 어떠한가? 2021년 기준 '스트레스 인지율(대단히 많이+많이)'은 전체 청소년의 39%로 조사됐고, 여자 청소년(46%)이 남자 청소년(32%)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14%p나 높게 나타났다.
- ▶ 또,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우울감을 묻은 결과, 응답 청소년의 27%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우울감 경험률'도 여학생(31%)이 남학생(22%)보다 높아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스트레스 인지율 (2021, %)



[그림]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우울감 경험률 (2021,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통계', 2022.05.2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8호\(2022년 6월 2주\)](#)

- 대통령 집무실 이전 & 새 이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지방선거 결과 분석\] 대선, 분할투표 그리고 부동산](#)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2.06.08.

[“김건희 내조만 해야” 60.6%, “공직 활동해야” 31.3%](#)

문화일보_2022.06.11.

◎ 사회 일반

[고학력·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 낳을 확률 크다](#)

조선일보_2022.06.07.

['저출생 매우 심각' 남성 74%, 여성 56%... "국가 지원 부족"](#)

연합뉴스_2022.06.11.

[혼자 자는 싱글, 같이 자는 커플... 누가 더 숙면할까](#)

조선일보_2022.06.12.

[스트레스·우울감은 시골일수록, 흡연·비만율은 도시일수록 낮다](#)

조선일보_2021.06.12.

[코로나로 직장내 성희롱 감소...발생장소 1위 '회식'→'사무실'](#)

연합뉴스_2022.06.07.

[대기업 '높은 벽'...중소기업 이직자 중 10%만 대기업 갔다](#)

중앙일보_2022.06.08.

[줄어드는 재택근무, 생산성 평가도 하락](#)

중앙일보_2022.06.09.

['공무원 도시' 세종, 1인당 연 근로소득 4520만원 전국 1위](#)

중앙일보_2022.06.09.

["국밥도 만원" 런치플레이션..."나가면 10만원" 소개팅도 포기](#)

중앙일보_2022.06.06.

[대한민국 '2020 세계기부지수' 114개국 중 110위](#)

국민일보_2022.06.09.

[부부 '평등의식' 높지만...주중 육아분담 여전히 엄마가 70%](#)

연합뉴스_2022.06.14.

◎ 청소년 / 청년

[코로나 여파 중고교 중위권 붕괴...고2, 6명중 1명 '수포자'](#)

동아일보_2022.06.13.

[수도권 청년 구직자 10명 중 7명 "지방근무 안 하고 싶다"](#)

연합뉴스_2022.06.7.

◎ 경제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104%...여전히 세계 1위](#)

[한겨레_2022.06.06.](#)

[코로나 불황에... 3040 '젊은 파산' 줄잇는다](#)

[조선일보_2022.06.08.](#)

◎ 국제

[한·일 역사문제...韓 국민 81%·日 국민 58% "양보하면 안 돼"](#)

[한국경제_2022.06.09.](#)

[美 대기업 CFO들 "경기침체 내년 상반기에 온다... 다우지수 18% 이상 떨어질 것"](#)

[조선비즈_2022.06.10.](#)

◎ 한국일보 - 요미우리 공동 여론조사

[1. "한일, 관계 개선 바라지만 책임은 상대국에만 요구한다" _2022.06.09.](#)

[2. 일본인도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인기"... '인정' _2022.06.08.](#)

[3.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 있지만, 과거사엔 서로 양보 말라 요구" _2022.06.09.](#)

[4. "중국과의 관계 나쁘다"는 한국인은 63%, 일본인은 80% _2022.06.09.](#)

[5. "한일관계,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개선"... 기대 2배씩 커졌다 _2022.06.09.](#)

◎ 기독교 / 종교

['인간 유전자 조작' 등 과학 기술에 종교인 우려 높아](#)

[미주한국일보_2022.06.09.](#)

◎ 칼럼

[20대 여성들이 위험하다...극단선택 급증한 이유는](#)

[조선일보_2022.05.15.](#)

[청년 취업·소득 증대 없는 출산율 정책은 공염불](#)

[중앙일보_2022.06.08.](#)

◎ 이슈큐레이션

['95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송해가 일깨워준 것](#)

[중앙일보_2022.06.1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 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ыл,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록,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우리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 관련 포럼을 안내합니다.

제6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 일시 :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1시~4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구관)
4층 제1연수실(온라인 zoom 동시 진행)
- 문의 : 010-8605-0675(이박행) / 010-8966-1557(유미호)
- 신청 : <https://bit.ly/3MRfD8I>포럼

